



#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자료

- 순서 -

- I. 개요
- II. 결산
- III. 참가 게스트 및 프레스
- IV. 관객 이벤트 및 공식 행사
- V. 시상
- VI. 아시아필름마켓 결산
- VII. 아시아영화펀드 결산
- VIII. 부산국제영화제 컨퍼런스와 포럼 결산
- IX.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결산

# I. 개요

## 1. 기본 개요

- 기간: 2015년 10월 1일(목) ~ 10일(토)
- 75개국 302편 상영
- 상영관: 6개 극장 35개관(마켓과 비공식 상영작 상영관 제외)
  - ✓ 센텀시티: 롯데시네마 센텀시티, CGV 센텀시티,  
영화의전당,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
  - ✓ 해운대: 메가박스 해운대
  - ✓ 남포동: 메가박스 부산극장

## 2. 총 관객수: 227,377명

## 3. 월드+인터내셔널 프리미어

- 월드 프리미어: 94편 / 인터내셔널 프리미어: 31편

## 4. 아시아필름마켓

- 마켓배지: 총 50개국 839개 업체 1,571명
- 세일즈부스: 총 22개국, 208개 업체, 89개 부스
- 마켓 스크리닝: 총 16개국, 44개 업체, 74편, 84회 상영(마켓 프리미어 60편)

## 5. 아시아영화펀드

## 6. 부산국제영화제 컨퍼런스와 포럼

## 7. 아시아영화아카데미

## II. 결산

### 1. 내실 있고 의미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20 회 성료

20 회를 맞아 화려하고 떠들썩한 영화제보다는 부산국제영화제 고유의 정신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.

### 2. 역대 최다 관객 동원

지난 2014 년 역대 최다 관객동원 기록인 226,473 명을 뛰어넘는 227,377 명의 관객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. 올 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객들의 사랑과 지지로 안정적인 영화제를 운영할 수 있었다.

### 3. 아시아영화의 가치 재정립

‘아시아영화 100’, ‘한국영화 회고전 - 1960 년대 숨은 걸작’ 등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영화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프로그램이 국내외로 이목을 집중시키면서, ‘아시아영화의 허브’로서의 부산국제영화제 위상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.

### 4. 관객과 호흡하는 영화제, 담론의 장 활성화

역대 최다 GV 와 무대인사,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와 포럼 등을 통해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담론의 장을 확장하는 영화제로 거듭났다.

### 5. 아시아필름마켓,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

‘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마켓(E-IP)’의 성공적인 런칭으로 아시아필름마켓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했고, 워크스인프로그램스와 아시아캐스팅마켓도 주목을 받았다.

### III. 참가 게스트 및 프레스

- 총 참석인원	9,685명
국내 게스트	3,226명
해외 게스트	755명
시네필	1,405명
마켓	1,571명
BC&F	403명
프레스	2,325명

\* 단순 참가(방문)자 제외한 배지 발급자에 한함

### IV. 관객 이벤트 및 공식 행사

- 마스터클래스 2회 / 핸드프린팅 3회 / 특별토크 1회
- 오픈토크 7회 / 야외무대인사 34회
- 아주담담 4회
- 야외무대공연 3회
- 짧은 영화, 긴 수다 3회
- 시네마투게더 12팀
- 관객과의 대화(GV) 353회
- 기자회견 총 10회
- 개별인터뷰 총 372회

## V. 시상

### 1. 뉴 커런츠상

#### 수상작 1: <아야즈의 통곡> / 하디 모하계흐(이란)

심사평: 감정이 가득한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놀라운 솜씨가 돋보인다.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지만, 이 영화는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,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.

#### 수상작 2: <호두나무> / 예를란 누르무캄베토프(카자흐스탄)

심사평: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삶의 방식이지만 유머, 친절함, 그리고 용서가 우리 모두를 어떻게 연결해주는지에 대해 보여준다.

#### \*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

- 심사위원장: 실비아 창(배우, 감독 / 대만)

- 심사위원: 아누락 카시압(감독 / 인도)

김태용(감독 / 한국)

나스타샤 킨스키(배우 / 독일)

스테파니 자카렉(영화평론가 / 미국)

## 2. 비프메세나상

**수상작(한국) : <소년, 달리다> / 강석필(한국)**

심사평: 이 영화는 현재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, 관객들이 본인들의 과거와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. 섬세한 카메라워크 또한 두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매혹적으로 풀어간다.

**수상작(아시아) : <마주 보다> / 예원(중국)**

심사평: <마주 보다>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아이들의 사랑과 그 인정에 대한 투쟁을 몽클하면서도 날 것 그대로의 이미지로 묘사하였다. 진정한 사랑과 인간관계의 가치를 외면하는 근대 중국 가족사의 모습이 안타깝게 비춰지나 뛰어난 카메라워크로 잊지 못할 영상을 남겼으며, 주인공들에게 최대한으로 밀착한 관찰력이 특히 돋보였다.

**특별언급 : <그림에도 불구하고> / 김영조(한국)**

심사평: 영화는 부산의 '영도다리' 와 동의어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언어 및 존재를 감각적으로 드러내며, 역사적 근대성의 공간을 이해하는 도구로 탁월하게 사용한다.

### \*비프메세나상 심사위원

- 심사위원: 도리스 헤그너(세계문화의 집 프로그래머 / 독일)

두 하이빈(감독 / 중국)

김동령(감독 / 한국)

### 3. 선재상

수상작(한국): <치욕일기> / 이은정(한국)

심사평: 가난, 사랑, 죄라는 현대적이고도 보편적인 주제에 거침없이 접근하면서, 요동치는 감정을 섬세하면서도 힘있게 연출 했으며, 절실함을 극대화한 배우의 연기력 또한 높이 평가한다.

수상작(아시아): <가정부 니아> / 라우 썬 핫(대만)

심사평: 강렬하고 복잡한 주연배우의 초상화를 뛰어난 연출로 그려낸 이 작품은 심사위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. 사회적으로 반론을 일으킬만한 이 영화는 신인 감독의 또 다른 성장을 예고하며, 뛰어난 연기력을 갖춘 신인 배우의 훌륭한 쇼케이스가 된 작품이다.

#### \*선재상 심사위원

-심사위원: 스와 노부히로(감독 / 일본)

김호정(배우 / 한국)

클로데트 갓프리(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(SXSW) 프로그래머 / 미국)

#### 4. 올해의 배우상

**올해의 남자배우상: <혼자> / 이주원(한국)**

심사평: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은 듯한 열연을 특히 인상적으로 보았다. 극한 감정의 기복을 롱테이크로 보여주면서도 호흡이 달리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.

**올해의 여자배우상: <소통과 거짓말> / 장선(한국)**

심사평: 매우 공감하기 어려운, 거짓말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렬하고 또 섬세하게 표현하여 끝내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다.

#### **\*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**

-심사위원: 박중훈(배우, 감독 / 한국)

문소리(배우, 감독 / 한국)

#### 5. 국제영화평론가협회(FIPRESCI)상

**수상작: <아야즈의 통곡> / 하디 모하계흐(이란)**

심사평: 올해의 FIPRESCI 심사위원들은 이란 감독 하디 모하계흐 <아야즈의 통곡>을 수상자로 선택했다. 가족의 비극을 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잔혹하지 않게 접근하여 보편적인 주제를 능숙한 영화 표현으로 그렸다.

#### **\*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심사위원**

-심사위원: 프레디 왕(홍콩)

사이토 히로아키 (일본)

아이만 압델 요세프(이집트)

모 압디(영국)

황영미(한국)

## 6. 아시아영화진흥기구(NETPAC)상

수상작: <소통과 거짓말> / 이승원(한국)

심사평: 강렬한 두 캐릭터에 대한 진실을 도발적으로 드러낸 연출 스타일에 파편화된 내러티브를 흥미롭게 구사한, 이승원 감독의 데뷔작 <소통과 거짓말>을 선정한다.

### \*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심사위원

-심사위원: 이종찬(한국)

에드 레하노(필리핀)

차디 제네딘(레바논)

## 7. 대명컬처웨이브상

수상작: <초인> / 서은영(한국)

심사평: 불안정하고 어리숙한 고등학생의 감성을 섬세한 영상으로 담았다. 젊은 날의 혼란과 상처가 어떤 양상으로 치유 되는지와,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얻는 모습을 흥미롭게 그려내었다. 장치의 활용도가 높은 영화로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소재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. 지나간 우리들의 성장통을 떠올릴 수 있는 청춘 영화.

## 8. KNN 관객상

수상작: <라디오> / 하리 비스와나스(인도)

## 9. BNK 부산은행상

수상작: <헬라스로 통하는 고속도로> / 아론 레만(독일)

## 10. 시민평론가상

수상작: <혼자> / 박홍민(한국)

심사평: 박홍민 감독은 악몽과 현실을 소재로 한 <혼자>에서, 골목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영화적 체험을 우리에게 선사했다. 다음 작품을 기대하며 시민평론단의 지지를 보낸다.

## 11. 부산시네필상

수상작: <경계의 저편> / 로베르토 미네르비니(이탈리아, 프랑스)

심사평: 다큐멘터리의 기존 형식을 파격적으로 벗어나, 미국 소외계층의 비참한 현실을 관객으로 하여금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경향에 목말라하는 20 대 영화학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영화를 부산시네필은 지지한다.

## 12. CGV 아트하우스상

수상작: <눈꺼풀> / 오멸(한국)

심사평: 오멸 감독의 <눈꺼풀>은 죽은 자들의 넋을 돌보고 남은 자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시선을 통해 영화가 예술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작품이다. 자신만의

제작 방식으로 압도적인 미학을 보여준 오멸 감독의 작품세계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<눈꺼풀>에 CGV 아트하우스상을 수여하고자 한다.

### 13. 한국영화감독조합상

수상작 1: <양치기들>/ 김진황(한국)

심사평: <양치기들>은 캐릭터의 운용면에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연기 연출의 영역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였고, 스타일적으로는 장르 영화로서 말끔하고 세련된 가능성이 기대되는 작품이다.

수상작 2: <눈꺼풀> / 오멸(한국)

심사평: <눈꺼풀>은 예술가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방식을 깊은 성찰과 느린 은유를 통해,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큰 울림을 전한 작품이다.

### 14.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

수상: 스튜디오 지브리 (애니메이션 제작사 / 일본)

### 15. 한국영화공로상

수상자: 빌란트 쉬펙 (베를린영화제 파노라마 집행위원장 / 독일)

## VI. 아시아필름마켓 결산

- 마켓배지: 총 50개국 839개 업체 1,571명
  - 세일즈부스: 총 22개국, 208개 업체, 89개 부스
  - 마켓 스크리닝: 총 16개국, 44개 업체, 74편, 84회 상영(마켓 프리미어 60편)
  - 온라인 스크리닝: 총 225편(영화제 상영작 178편 포함)
- \* 중국 증시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, 올해 새롭게 시작한 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(E-IP) 마켓과 아시아캐스팅마켓이 기대 이상의 성과와 호응을 이끌어내 엔터테인먼트 토탈 마켓으로서의 미래상을 제시

### 아시아프로젝트마켓(APM)

- 2015년 프로젝트 수: 총 30편
- \* 전도유망한 신인감독의 신진 프로젝트를 대거 발굴함으로써 3일간 600회가 넘는 미팅을 진행하며, 아시아 최대 투자·공동제작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

### APM 프로젝트 시상 결과

- 부산상: 하나 마흐말바프 <런던 이야기> / 영국
- 텍스터 스튜디오 어워드: 유릭와이 <목적을 위한 수단> / 중국, 프랑스
- CJ 엔터테인먼트 어워드: 미카일 레드 <버드샷> / 필리핀, 카타르
- 롯데 어워드: 김태용 <브라더> / 한국
-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: 김정환 <한매매 가출사건> / 중국, 한국
- 아르떼상: 에디 카요노 <황무지> / 인도네시아, 프랑스
- 모네프상: 씨제이 왕 <퇴직> / 대만

### E-IP 마켓 시상 결과 [작가 <작품명> / 출판사 또는 제작사]

- 뉴 크리에이터상(북투필름): 최종림 <사라진 4시 10분> / 생각나눔
- 뉴 크리에이터상(E-IP 피칭): 오성윤, 이춘백 <언더독> / 오돌또기, 드림써치 C&C

## VII. 아시아영화펀드 결산

### 1. 아시아영화펀드(ACF) 2015년도 지원 내역

#### - 장편독립영화 인큐베이팅펀드: 총 5편

(아시아프로젝트 4편, AFA 프로젝트 1편), 각 1천만원 지원

#### -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지원펀드: 총 6편

(아시아프로젝트 2편, 한국프로젝트 3편, 베니스영화제 비엔날레 컬리지-시네마 프로젝트 1편), 후반작업 현물지원

#### - 다큐멘터리 AND 펀드: 총 14편

(아시아프로젝트 제작지원 9편): 2편 각 1천만원 지원, 7편 각 5백만원 지원

(한국프로젝트 제작지원 4편): 1편 2천만원, 3편 각 1천만원 지원

(한국프로젝트 배급지원 1편): 1편 1천만원

※ 배급지원펀드는 영화제에 상영된 한국 다큐멘터리 7편 중에서 작품성 및 대중성을 갖춘 작품에 지원하며, 올해는 김영조 감독의 <그림에도 불구하고>가 선정

#### - AND 프로그램: 10월 5일(월) ~ 7일(수)

① 1대 1 프로젝트 클리닉 진행

② 메리 스테펜(에릭 로메르 감독 작품 편집자) 특별 강연

③ 라우 킷 핫 감독 <무단 외출>: 'AND 타스코프스키 필름 아시아 탤런트 펀드' 지원작으로 선정

### 2. 아시아영화펀드(ACF)의 지원 확대 및 협력 사업 성과

#### - 후반작업지원펀드 신규 파트너 영입

영문 자막 제작업체 '꿈틀'이 신규 파트너로 참여

#### - 후반작업지원펀드 지원 분야 확대

DI(디지털 색보정), 사운드 믹싱, DCP 패키징 및 영문 자막 스포팅 작업 추가 지원

#### - 베니스영화제 비엔날레 컬리지-시네마와의 협력 사업 본격화

하세이 코키 감독 <블랑카> 후반작업 지원 : 2013년 베니스영화제 비엔날레 컬리지-시네마와의 협력사업 체결 이후 첫 지원작. 2015 베니스영화제 소리소 디베르소(Sorriso

Diverso)상, 란테르나 마지카(Lanterna Magica)(CGS)상 수상 및 제 20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의 창 부문 상영

### 3.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

극영화: 7편 (아시아 4, 한국 3) / 다큐멘터리: 6편 (아시아 5, 한국 1)

\* <블랑카> | 아시아영화의 창 | 하세이 코키 (이탈리아/필리핀/일본)

2015 ACF 후반작업지원펀드, 베니스영화제 비엔날레 컬리지-시네마

\* <우화의 강> | 아시아영화의 창 | 바스카르 하자리카 (인도)

2015 ACF 후반작업지원펀드

\* <표범은 물지 않는다> | 아시아영화의 창 | 프라사나 자야코디 (스리랑카)

2015 ACF 후반작업지원펀드

\* <다른 길이 있다> | 한국영화의 오늘 - 비전 | 조창호 (한국)

2015 ACF 후반작업지원펀드

\* <스틸 플라워> | 한국영화의 오늘 - 비전 | 박석영 (한국)

2015 ACF 후반작업지원펀드

\* <혼자> | 한국영화의 오늘 - 비전 | 박홍민 (한국)

2015 ACF 후반작업지원펀드

\* <안식처> | 아시아영화의 창 | 수만 고쉬 (인도)

2013 ACF 인큐베이팅펀드

\* <마주 보다> |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| 예원 (중국)

2012 AND펀드 BIFF후원회펀드

\* <샤흐르자드의 천일야화> |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| 샤힌 파르하미 (이란/캐나다/한국)

2012 AND펀드 동서아시아펀드

\* <승려와 분홍신> |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| 나카무라 타카유키 (일본)

2013 AND펀드 동서아시아펀드

\* <도시를 떠돌다> |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| 김정 (한국)

2013 AND펀드 영산펀드

\* <마이 랜드> |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| 판지엔 (중국)

2012 AND펀드 동서아시아펀드

\* <애국청년> |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| 두하이빈 (중국)

2013 AND펀드 부산은행펀드

## Ⅷ. 부산국제영화제 컨퍼런스와 포럼 결산

1. 기간: 2015년 10월 7일(수) ~ 9일(금)

2. 장소: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, 동서대학교센텀캠퍼스,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

### 3. 참가규모

- 참관객 전체: 1,765명(컨퍼런스 1,034명 / 포럼 731명)
- 참관객 중 배지 등록 참가자(유료 / 초청 / Day Pass): 403명

### 4. 주제 및 프로그램

① 팝콤특특 스페셜: 허우샤오시엔 X 자객 섭은낭

② 컨퍼런스: 영화와 트랜스-담론

- 기조발제: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: 글로벌 미션 - 세릴 분 아이작스
- 인문학 콘서트: 전형과 욕망 - 김인환 (고려대 명예교수)
- 세션 1: 학생시네필 컨퍼런스-아시아의 눈으로 보는 영화 인문학
- 세션 2: 역사의상흔과 트랜스제너레이션-아시아영화의 역사 트라우마와 재현
- 세션 3: 중국영화와트랜스 담론-공간과미디어의 초극과 융합
- 세션 4: 트랜스시대-영화,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다
- 세션 5: 영화, 정치와 이마쥬
- 세션 6: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꿈꾸는 종횡무진 트랜스-크리에이션
- 세션 7: 글로벌 한국영화의 작가주의 재조명
- 세션 8: 영국이 사랑하는 한국영화: 배급, 상영 그리고 비평
- 세션 9: 영화와 철학의 상호횡단
- 세션 10: 영감의 원천, 코리아: 증가하는 '외국인 영화'(Expat Film), 그 배경과 의미

### ③ 포럼

- 청춘인문강좌 – 김한민 영화감독, 한명기 명지대 교수 토크콘서트
- 세션 1: 아랍의 봄과 아랍영상문화
- 세션 2: '웨이띠엔잉'이란 무엇인가? - 중국의 인터넷 작은 영화, 그것이 알고 싶다
- 세션 3: 광복 70주년, 한국영화 70년
- 세션 4: 배우, 관객에게 말 걸다
- 세션 5: 법률콘서트: 영화, 司法正義를 말하다  
-사법현실과 사법이상 사이의 고뇌들(제10회 영산대 법률포럼)
- 세션 6: 한국영화 스토리의 세계화
- 세션 7: 스페인 영화가 서 있는 곳
- 세션 8: 제2회 경성 영화독서포럼(2015): 국제시장, 2014
- 세션 9: 올해의 아시아작가 집중조망: 아피차퐁 위라세타쿤과 이미지의 영성성
- 세션 10: 한국과 베트남, 미래를 향한 기억 그리고 연대
- 세션 11: 한-일 문화교류, 그 궤적과 전망

## IX.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결산

1. **기간:** 2015년 9월 24일(목) ~ 10월 11일(일) (18일간)
2. **장소:** 영화의전당,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,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등
3. **참가자:** 100여명  
(펠로우 13개국 24명, TA 5명, 인턴 15명, 교강사진 10명, 현장스태프 등 기타 46명)
4. **지도교수진**
  - 교장: 왕 샤오슈아이 (중국)
  - 교감: 오석근 (한국)
  - 연출 지도 교수: 안소니 첸 (싱가포르)
  - 촬영 지도 교수: 예르지 지엘린스키 (폴란드)
5. **주요 프로그램**
  - ① 단편영화제작 및 상영
    - <집으로 가려면> Last Ship Home | HD | 15min | Color
    - <소희를 만나다> Meet Sohee | HD | 15min | Color
  - ② 워크숍 총 6회(연출, 제작, 촬영, 미술, 사운드, 편집)
  - ③ 마스터클래스 1회 (교장 왕 샤오슈아이)
  - ④ 특강 6회: 프로덕션디자인(김선령), DCP 마스터링(이영기), 작은 자본으로 영화 만들기(이무영), 컬러그레이딩(황우현), 연출스토리(김대승)
6. **장학금 수여**
  - ① 동서대학교에서 펠로우 2인 각각 현금 5백만원 수여
  - ② ㈜디엠라이트, 루모스에서 촬영전공자 2인 각각 LED 조명기 1대 수여
  - ③ ㈜뉴욕필름아카데미 장학생 2인 뉴욕과 베이징캠퍼스의 4주 영화워크숍 참여 제공